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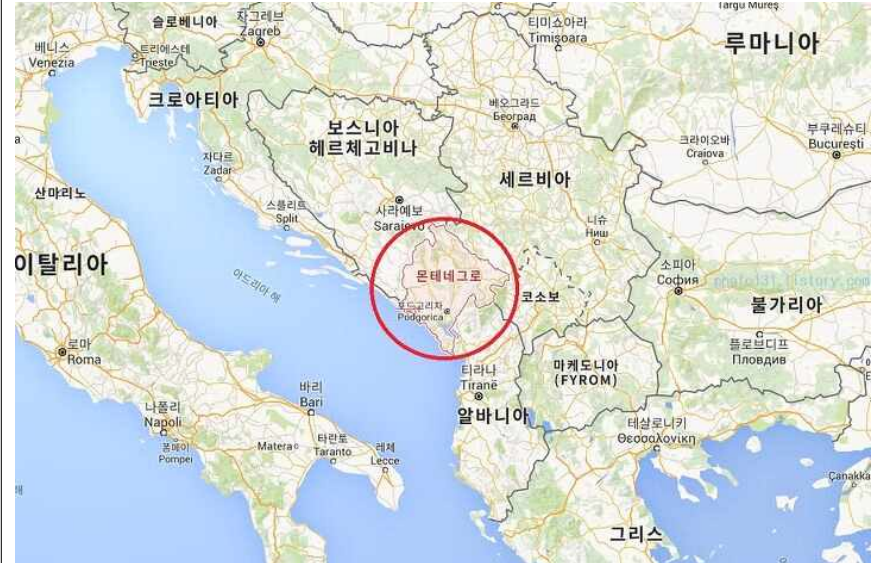
월 7/26	통독	창세기 11장
	신앙	같은 말과 언어를 쓰면서도 소통하지 못하는 고장 난 우리를 고쳐주소서
	선교	몬테네그로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세속화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보호주소서.
화 7/27	통독	창세기 12장
	신앙	기근의 때인 지금 애굽이라는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게 하소서
	선교	국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정교회에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게 하소서.
수 7/28	통독	창세기 13장
	신앙	번잡스럽고 바쁜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선교	몬테네그로 안에 복음적인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지고 성장하게 하소서.
목 7/29	통독	창세기 14장
	신앙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싸워야 하는 대적들과 적극적으로 싸우고 승리케 하소서
	선교	몬테네그로 안에 있는 소수민족들을 섬길 수 있는 선교사들을 보내 주소서.
금 7/30	통독	창세기 15장
	신앙	우리의 방패 되시고 큰 상급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몬테네그로에서 현재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소서.
토 7/31	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일예배 찬송을 가족들과 함께 불러보고, 주일설교 본문을 미리 읽으면서 주일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게 될 교우들을 위해서, 설교자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길개역교회

Family Worship

2021-30호(7월 26일 ~ 7월 31일) Family Governor:.....

몬테네그로 Montenegro



이번 주간은 몬테네그로를 마음에 품는 주간입니다.
 뒷면에 있는 몬테네그로 선교 정보를 읽어보시고
 매일 주어진 선교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몬테네그로 선교 기도제목

유럽 남부 발칸반도의 아드리아해 연안에 위치한 작은 나라이다. 작지만 산이 많고 경관이 수려하다. 국호 몬테네그로는 이탈리아어로 '검은 산'이란 뜻으로 로브첸 산을 가리킨다. 몬테네그로는 일찍이 1077년초에 국가 승인을 받았고, 1918년 유고슬라비아 왕국에 편입되었다. 1992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로 독립한 후.

2006년 국민 투표를 통해 다시 분리 독립하였다.

인구: 621,873명 수도: 포드고리차

도시화율 : 59.5% 1인당 GDP : 7,933달러

종교: 기독교 3.85% 정교회 72.07%,

이슬람 19.21%, 기타, 무종교 4.86%

1. 몬테네그로는 역사적으로 1516~1852년 신정주의 공국의 통치 시기에 정교회가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믿음을 바꾸려는 사람은 드물다. 주목할 사항은 세르비아 정교회에서 독립한 몬테네그로 정교회가 서로 불화하는 문제다.
2. 몬테네그로의 역사는 9세기 비잔틴제국의 제후국이었던 두클랴로 비롯된다. 중세에는 공국이었고, 오스만제국 지배 이후 1878년에 독립했고, 1918년부터 유고슬라비아 왕국의 일부로 공산화되었다. 1992년에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로 독립한 후, 2006년 국민 투표에 따라 6월 3일에 몬테네그로공화국으로 다시 분리 독립하였다, 2007년 10월 22일에 국명을 몬테네그로로 바꾸었다.
3. 독립으로 낙관과 희망을 가져 왔다. 몬테네그로는 작은 나라지만 잠재력이 크다. 발칸반도를 괴롭힌 인종과 종교 공동체 사이의 적대감을 해소한다면,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다. 그러나 EU 가입과 함께 관광산업이 성장하면서 발전한 경제는 평화도 구원도 가져오지 못한다. 사회가 복음 위에 서지 않으면 경제발전이 오히려 부패를 재촉할 것이다. 평화롭고 부패 없는 나라로 조화를 이루며. 신생

국으로써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도록 기도하자.

4. 세르비아로부터 분리 독립하며 세르비아 정교회 대신 자신의 정교회를 세우려는 몬테네그로 정교회가 소송과 서로를 비난하며 세속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20세기 이전의 몬테네그로 정교회 독립된 교단으로 돌아가면서 지도자들이 권리와 재산을 두고 다 투기보다, 대부분 명목상 신자인 국민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하자. 국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정교회에 새로운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5. 복음주의 교회는 소수이지만 증가하고 있다. 오순절교, 침례교, 형제회가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다. 2000-2005년에 복음주의자가 5배나 늘었지만, 여전히 인구의 0.1%도 되지 않는다. 비록 소수지만 복음적 교회는 전도의 비전을 갖고 있다. 교회가 계속 성장하며 사회의 반대와 압제에도 증인들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교단들이 연합하여 풍성한 사역의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하자.
6. 소수 종족은 대부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 보스니아인은 몬테네그로 인구의 11%를 차지하며 대부분 배타적인 무슬림이다. 그들은 기독교인을 향한 극단적인 적대감으로 1990년대 발칸 반도에서 일어난 인종 청소라는 잔혹 행위를 정당화한다. 무슬림에게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자의 마음으로 다가가길 기도하자.
7. 알바니아인, 로마니는 공식적으로 인구의 0.5% 가량의 기독교인이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다. 다른 발칸 반도 나라들처럼 가난하고 종종 멸시받아왔으나, 대부분이 복음에 더 열려 있다.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37 나라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에서 발췌함 -